

김오진 1차관, 청년 주거개선 지속 지원 약속

-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대학생·청년 주거여건 개선 소통 행보 -

□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8일(금) 오전 10시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하여, 기숙사 시설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·청년들의 주거고민에 대해 공감·소통하고,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대구 행복기숙사는 정부·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로서, 금년 3월에 개관하여 각종 편의시설(주자창, 카페 등)을 지역주민에게 개방

□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“고금리·고물가 시대에 학업으로 인해 타지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대학생·청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어,

○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시설 좋은 기숙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, 국토부는 행복기숙사 지원을 확대”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.

○ 또한, “금년 3월 개관한 대구 행복기숙사는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로서 대구·경북지역 재학생들의 주거여건 개선뿐 아니라, 인근 주민들의 편의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기숙사 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.

○ 아울러, 기숙사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기금 대환*을 추진하는 등 대학생·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.

* 행복기숙사 건설 시 지원했던 기존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(4.03%)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(1.5%)으로 대환

□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, 앞으로도 청년·대학생들의 주거여건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.

2023. 12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